

지역 소식통

김제시보건소, 건강한 돌봄돌봄이터 시범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16일을 시작으로 2개월 동안 환산면 남양초등학교 1~2학년 돌봄아동을 대상으로 주 2회(화, 목요일) 방과 후 '건강한 돌봄돌봄이터' 운영을 시작한다.

돌봄돌봄이터 사업은 아동이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게 전통놀이, 협동놀이, 공놀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미각체험·실습·놀이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영양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김제시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전·후 학생의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과 학생 간 간격을 두어 지리 배치, 격렬한 놀이 활동 자제 등 지침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집중호우 침수피해 현장 방문

김제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호우특보 발령과 함께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3일 밤 11시 30분에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비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14일 김제시 평균 강우량은 95mm, 최고 강우량은 백구면 150mm로, 일시적인 폭우로 농경지 850ha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허전 부시장은 14일 09시부터 관내 피해발생 지역인 광활면 노지갑자 및 논공, 공덕면·백구면 농경지 침수지역 등을 방문하여 빠른 복구를 지시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천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사전재난의 중요성을 느끼고, 향후 자연재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총력'

박성일 군수, "완주형 신규 사업 발굴·내년 국가 예산 확보 위한 긴밀하게 공조해야"

박성일 완주군수가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사업 발굴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15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며 "대규모 국가예산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실무별로 완주형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디지털 생태계 강화와 안전망 구축,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 그

린뉴딜에 1조4천억원을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 군수는 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심의 단계부터 정치권·전북도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완주의 현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리로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박 군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내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시(戰時) 상황에 준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군수는 "지난 12일부터 폭우로 우리 지역에 181.7mm의 비가 내려 지역 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며 "농민들의 애 타는 심정을 감안해 읍면 등에서 응급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가 올해 상반기 마지막 간부 회의에서 국가예산 확보와 새로운 사업 발굴, 내년도 사업 구조조정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 말로 해석됐다. /완주=이종복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완주군, 상반기에 이어 190여대 추가 지원... 16일 부터 접수

완주군이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완주군은 상반기 1000여대에 16억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데 이어 국도비 2억, 군비 1억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해 190여대를 추가 지원하여 더욱 많은 차량에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이전 완주군에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연속해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어야하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일

경우 기준가격의 70%(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이면 10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완주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올해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지원 등 총 1400여대의 운행차 저공해를 시행하는 등 완주군의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임동민 환경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2020년 일자리사업 추진성과 향후 중점추진사업 논의·점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일자리사업 주요성과 및 향후 일자리정책 중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민선7기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보고와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대한 토의안건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향후 김제시 일자리 사업 및 정책에 다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민선7기 출범 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사업, 청년창업 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마을환경 자급이제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등 일자리사업 실적에 보고해 위원들의 점검을 받았다.

이윽고 올해 4월 최종 선정된 '고용

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될 사업계획 설명과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을 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시도 청년유출, 지역소멸 위기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4월 전북도와 우리시를 포함한 3개 시군에 일자리사업으로만 총사업비 924억원에 달하는 국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앞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원분들과 시민들에게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할 조사원을 6명 모집한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김제시민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고,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자료를 생산하게 된다.

조사원 참가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김제시보건소 2층

방문보건담당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된 조사원은 교육수료 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이용한 1:1 면접조사와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조사 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조사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인식 전환 특강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소연숙)는 최근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터 직업훈련 강의실에서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라는 주제로 취업인식 전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19로 중단되었

던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방문자 체온 체크 및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두빛나래 대표 신장철 강사는 취업을 위한 감정 관리와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한편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540-4112)는 김제시 보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유지보수

완주군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을 위해 안내시설물을 확충,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위치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이다.

현재 군에서는 4972개의 도로명판, 761개의 기초번호판, 3만205개의 건물번호판, 12개의 지역안내판을 관리하고 있다. 군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약 1억8천만원을 투입해 안내시설물을 확충한다.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

검해 망실, 훼손된 도로명 안내시설물에 689개소는 유지·보수 하고, 733개소는 신규 확충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을 위한 안내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 안내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so.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인 '주소 찾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